송파구의회, 제334회 임시회 개·폐회

송파구의회(의장 손병화)는 8월 26일부터 9월 8일까지 14일간 제334회 임시회를 열고, 주요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쳐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 16건 △구정질문 2건을 비롯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 2건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2026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손병화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 동안 안건 심사에 깊은 관심과 책임감을 갖고 임한 의원들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준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65만 송파구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고, 가족과 이웃이 따뜻한 정을 나누는 풍요롭고 평안한 한가위가 되기를 기원했다.



구정질문 (제2차 본회의, 2026년 9월 7일)



네팔 대홍수의 경악 '기후위기시계' 제안과 미래세대를 위한 ESG행정으로의 전환

최옥주 재정복지위원장(방이1동, 송파1·2동)

①송파 기후위기시계 설치 ②구정 전반의 ESG 전담 컨트롤타워 신설 ③ESG 예산 사전검토제 및 기후리스크 평가제 도입 ④ESG 공공조달 가이드라인 제정 ⑤건물에너지절감·유출지하수 재활용 등을 포함한 송파형 ESG 정비사업 가이드라인 수립 ⑥송파형 자원순환경제센터 구축 ⑦공공행사 다회용기 사용 의무화 ⑧기후취약계층 통합 보호체계 구축 및 구체적인 2030 송파 ESG 로드맵 수립과 실천을 강력히 요청.



마천동·거여동 일대 신속한 재개발 추진 촉구 및 종합대책 마련

박인섭 운영위원장(거여2동, 마천1·2동)

① 재개발 구역 내 임대주택 비율 조정 및 용적률 제고 방안 ② 정비구역 계 조정에 따른 주민 민원 해소 및 행정지원 방안 ③ 재개발 지역 내 교육시설 확충 및 정비계획 마련 방안 ④ 마천2구역에 대한 신속 추진을 위한 집중 행정지원 방안 ⑤ 송파구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을 위한 종합대책 (전문직인 기술직을 주택사업 과장에 임명하고 팀장 및 직원 배치 요구)

5분자유발언 (제1차 본회의, 2026년 8월 26일)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을 철회하십시오.

김서윤 의원
(풍납1·2동, 잠실4·6동)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부실한 인사검증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막대한 구 예산이 투입되는 지방공기업인 만큼 전문성·책임감·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심사 과정과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과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반복되는 인사 논란, 인사권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닙니다.

박성희 의원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반복되는 산하기관장 인사 논란을 지적하며, 구청장의 인사 방식이 구민과 구의회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인사권은 구청장 개인의 권력이 아닌 구민이 위임한 공적 권한임을 강조하며, 공직윤리와 상식에 기반한 인사와 객관적인 검증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방이동 노후공공복합청사개발, 조속히 추진하라

박순옥 재정복지부위원장
(방이2동, 오륜동)

장기간 지연된 방이동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 주민센터, 복지관, 도서관, 돌봄시설, 공영주차장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포함된 지역 숙원사업인 만큼, 사업계획 변경 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신속하고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구민의 신뢰로, 더 큰 송파를 만들겠습니다.

정성일 의원
(풍납1·2동, 잠실4·6동)

구민의 신뢰에 보답하는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다짐하며, 구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행정과 공직자 근무환경 개선을 강조하고, 풍납동 동명 개정과 잠실지역 교육환경 개선 등 지역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균형있는 송파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함을 당부했다.



기후위기 대응은 보편적 복지입니다.

이희승 의원
(잠실본동, 잠실2·7동)

폭염이라는 기후재난 속 쓰레기 문제와 환경공무관의 안전 문제, 온실가스 배출 서울 2위 송파구의 책임을 강조했다. 폭염기 탄력적 수거체계 개편, 환경공무관 노동환경 점검, 건설폐기물 자원순환, 재활용률 목표 구체화, 온실가스 감축성과 공개를 요청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모든 주민의 복지로서 전 부서 행정 원칙으로 삼을 것을 요구했다.



한국육영학교 발달장애 학생의 교육·돌봄·자립 기반 확충

지정수 의원
(장지동, 위례동)

장지동·위례동의 지역 현안과 함께 송파구 유일의 특수학교인 한국육영학교의 조속한 증축을 요청했다. 교실 확충을 넘어 발달장애 학생들이 교육·돌봄·직업교육을 거쳐 자립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5분자유발언 (제2차 본회의, 2026년 9월 7일)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공정한 인사 절차와 충분한 소통 강조

이강무 의원
(풍납1·2동, 잠실4·6동)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절차와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10대 송파구의회 개원기념식에서 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부적절한 언사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원칙있는 견제와 건강한 협력으로 송파의 내일을 향해 다시 함께 나갈 것을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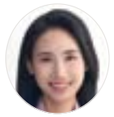
의회와 집행기관 간 상호 존중과 원활한 소통 필요

김안나 행정교육부위원장
(삼전동, 잠실3동)

개원기념식에서 나타난 구청장의 의회 관련 언행에 유감을 표하고, 의회와 집행기관 간 상호 존중과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를 언급하며, 구청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의회를 존중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 지면 관계상 의원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의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홈페이지 (https://council.songpa.go.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제3차 본회의, 2026년 9월 8일)



놀이터는 놀아도 안전은 놀면 안 됩니다.

박지효 의원
(거여1동, 가락2동, 문정1동)

2013년 설치 이후 13년간 교체되지 않은 문정근린공원 어린이놀이터 바닥재의 노후화를 지적하고, 관내 노후 놀이시설 전수조사와 물놀이시설 겸용 놀이터의 우선 점검을 제안. 내년 예산에 바닥재 개선사업을 반영하고 서울시 보조사업 등 가용 재원을 적극 확보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놀이환경을 조성할 것을 당부했다.



위례과천선 두데미역·북위례역 신설안 반영, 송파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채승우 의원
(거여1동, 가락2동, 문정1동)

위례과천선에 두데미역과 북위례역이 신설될 수 있도록 송파구의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지역 교통수요와 주민 의견을 반영한 검토자료 마련,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두 역 신설 필요성 건의 등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을 당부했다.



연간 방문객 1억 3,400만 명 시대, 송파에는 문화·예술·관광 통합전략이 필요합니다.

전정 행정교육위원장
(방이1동, 송파1·2동)

잠실의 문화·관광 인프라가 송파 전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송파형 문화관광 통합전략' 마련과 권역별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잠실·석촌호수·송리단길·방이맛골·전통시장·한성백제 등 관광자원을 하나의 동선으로 연결하고 지역별 특색을 살린 관광 프로그램과 상권 연계 방안을 구체화해 관광객의 체류와 소비를 송파 전역으로 확산할 것을 당부했다.



탄천의 아름다운 변화, 지속적인 관리로 완성해야 합니다.

강정선 의원 (비례대표)

탄천 이팝나무길과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기 순찰과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을 비롯해, 생태계교란식물 조기 제거와 토사 유실·수목 고사 등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제거 면적과 재발생 여부 등을 기준으로 관리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사후 정비에 그치지 않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탄천을 쾌적하고 안전한 명소로 가꿔나갈 것을 당부했다



멈춘 것은 공사가 아니라, 행정입니다.

박순례 도시건설부위원장
(방이2동, 오륜동)

방이동 52번지 일대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의 장기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지키기 위해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당부했다. 아울러 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구민의 소중한 자산과 권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함께 요청했다.



해외연수보다 민생입니다.

박지선 의원 (장지동, 위례동)

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주민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2026년도 송파구의회 공무국외출장비 1억 5,300만 원을 반납해 민생과 지역경제 회복에 활용하도록 제안한다. 의회 출범 초기인 만큼 해외연수보다 송파의 현안을 살피고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데 힘써야 한다며, 향후 국외출장도 외유성·관광성 연수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연수로 운영해 구정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송파의정 24시



제10대 송파구의회 개원기념식



2026년 송파구의회 반부패·청렴 교육 및 청렴 서약식